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646. 832. 7397

212. 736. 8500 (EXT 355, 3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eoulosb@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 Jordan, OFM

지도신부 : 이웅희 루카 (작은형제회 : 프란치스코회) luke0829ofm@gmail.com

전교수녀 : 안 마리루시 (투스평교베네딕도회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장철순 스테파노 646. 322. 2139 stfrancis.cj@gmail.com

제1독서 | 이사 49,3.5-6

화답송 | 시편 40(39),2ㄱ과 4ㄱ,7-8ㄱ,8ㄷ-9,10(㉠ 8ㄱ과 9ㄱ)



(후렴)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굽어보셨네.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 ◎
○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귀를 열어 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제2독서 | 1코린, 1,1-3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네. 그분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네. ◎ 알렐루야.

복음 | 요한 1,29-34

영성체송 | 주님이 제게 상을 차려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성가 | 입당 421
영성체 182(183)

예물준비 340(216)
파견 39

신앙고백: 사도신경

† 전능하신 천주 성부

◎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밀줄 부분에서 고개를 숙인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미사 봉헌

연미사 지향

- 이선민 마리아
- 임순남 엘리자벳, 이창식 베드로
- 김예경 안젤라
- 김복순 수산나

생미사 지향

- 이장학 토마스 건강 회복
- 강호영 안드레아 가정 영육간의 건강
- 임영애 스텔라 빠른 회복
- 임영애 스텔라 건강 회복
- 김세호 데이비드
- 김세호 데이비드(#2)
- 정다경 마리아 생일 축하
- 서하연 프란치스코
- 민경록 로이드
- 조연주 베로니카의 세례를 축하하며

오늘의 말씀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요한 1,29)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체 분배	복사
1월 18일	정유진	민완준	민덕미	민덕미	김종선 진서윤 정다경	이예진 한서희
1월 25일	김유화	국민준	김미혜	김미혜	유정옥 백이백 이정현	한서희 이예진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대성전
청년 미사	매달 둘째 토요일 오후 4:00 소성전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면담 후 결정 *신청: Sr. 마리루시
유아 세례	면담 후 결정 *신청: Sr. 마리루시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 Sr. 마리루시
예비신자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 Sr. 마리루시
견진 교리	방문교리(환자/어르신)*신청: Sr. 마리루시

주일 미사 후 친교 모임

산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 분, 새로 전입오신 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재속프란치스코회 뉴욕 한국순교자형제회

(Monthly Meeting: Secular Franciscan Order of New York Korean Martyrs Fraternity)

일시: 매월 첫째 주일 12:00-5:00 PM.

장소: 아랫성당(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대상자: 지원자/ 입회자/ 유기서약자/ 종신서약자

문의: 646. 685. 7788 봉사자 원혜미 엘리사벳

2026년 주일학교 개강

오늘 2026년 주일학교가 시작됩니다.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꾸준히 참석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주일학교 교사 임명>

- 유치부: 이루다 루시아, 정수민 아그네스
- 2-3학년: 김민경 바실리아, 박근형 가브리엘, 김현수 프란치스코
- 4-5학년: 정승연 플로라(교감), 노유빈 빅토리아
- 중고등부: 송지연 프란체스카(총무), 윤소정 라파엘라, 이종창 미카엘

* 주일학교를 위하여 수고해 주실 봉사자들에 감사드리며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성지가지 회수

작년 주님 수난 성지주일에 나누어 드렸던 성지가지를 회수합니다. 각 집에 두었던 성지가지를 코리안 오피스 복도에 있는 성지가지 회수 바구니에 넣어주세요. 재의 수요일(2/18) 예식 때 사용됩니다.

찬양미사(주관: 성령기도회)

시간: 1월 20일(화), 6:30PM 장소: 산 다미아노홀

설 합동 위령 미사 신청

* 이름과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 주세요.

미사: 2월 15일(주일), 09시 15분

신청: 미사 후 산 다미아노홀(연령회장 김종선 비비안나)

마감: 2/8(주일)

2026년 견진성사반 안내

교육기간: 2/22-3/29 시간: 1:00 PM~ (장소: 추후 공지)

문의: 646. 832. 7397 (Sr. 마리루시)

SNS성경공동통독(마르코/마태오/루카) 후속모임

2025년 대림시기 동안 함께 했던 공관복음 성경통독의 소감을 나누고 성경읽기의 중요성과 그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날짜/시간: 1/24(토), 1:00PM-2:30PM

장소: 클라라룸 (진행: Sr. 마리루시)

2026 전 신자 SNS 성경공동통독(요한/사도행전)

2025년 대림시기 <공관복음(마르코, 마태오, 루카)> 통독에 이어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공동통독을 시작합니다. 주님 부활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한 영적 준비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대상: 2/8-3/28, 전 신자

방법: 각자 매일 1장씩 정해진 분량 읽기, 언제든지 참여 가능(늦게 참여하신 분들은 진도가 나간 분량을 개인적으로 꼭 채우시길 바랍니다.)

참여방법: 1. QR 스캔 또는

<https://open.kakao.com/o/g2b2QQUh>

2. 코드 10001 입력

문의: 646. 832. 7397 (Sr. 마리루시)



54일 묵주기도 모임

2026년 '영성의 해'를 맞아 일상기도의 심화를 지향하며 '54일 묵주기도'를 함께 시작하는 모임을 마련합니다. 묵주기도 첫날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이후 개별로 기도합니다.(*기도 기간 동안 2-3회 중간모임 있을 예정)

시작모임: 1/31(토), 10:30AM(준비물: 묵주, 필기도구)

장소: 프란시스룸

문의: 646. 832. 7397 (Sr. 마리루시)

미 동북부 제 68차 기초성령세미나

일시: 2/19(목) 5:00PM ~ 2/22(주일) 5:00PM

장소: 뉴튼 수도원, 297 US-206, Newton, NJ, 07860

참가비: \$390(식사 및 숙박 포함), 교재비: \$15

문의: 917. 929. 4242(성령기도회장 민재인 데레사)

* 2025년 '일년일독 성경통독' 완주: 유희순 그레이스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주보

기부



그림 해설

창가의 사랑학 | 같아지려 하지 않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름다움이라며 창가의 햇살은 지금 사랑학 강의 중입니다. 잠시도 햇빛에서 눈을 떼지 않는 초록의 이파리들 아래에는 펼쳐진 성경 위로 비친 십자가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성깔, 맛깔, 색깔, 때깔..., 생명에게 심어둔 창조주의 사랑 너머로 존재의 이유를 물어오는 아침입니다.

글 · 그림 하삼두 스테파노 | 작가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홍순완비오 노혜영리오바 이병국요한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 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Kim & Bob Shop
김밥, 비빔밥, 떡볶이 & More

배달 및 포장 전문, 케이터링 주문 환영
(929) 797-1212
826 9th Ave, New York, NY 10019
Between 54 & 55th Street
www.kimandbobshop.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5 WEST WINE & LIQUOR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0AM-10PM / SUN: 12PM-9PM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CARGOZONE
LOGISTICS INC

양서윤 플로라 | Flora Yang
marketing@czlusa.com
657-337-5130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 색소·미백·레이저
보톡스 / 필러 / 여드름 흉터

Tel 212-697-1802 Text 917-670-7801
501 5th Ave #1601, NY, NY 10017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HAPPY
HOME CARE

이지원 라파엘라 I:1 맞춤 방문 간호
Registered Nurse (투약·검진·돌봄)
(347) 927-5635
happyhomecare.rn@gmail.com

Colleen Insook Lee, M.D.

이인숙 내과
Tel: (212) 714-1170
Fax: (212) 290-9061
drleesmedical.mht@gmail.com (Bet. 32 & 33 St.)
1270 Broadway, #405 New York, NY 10001

평화를 빕니다!

지도 신부 이윅희 루카 OFM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26년을 새롭게 맞이하여 주님 안에서 희망의 여정을 나아가기를 바라며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커다란 은총 속에 감탄할만한 믿음과 성숙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신앙감각을 일깨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숙된 이가 보이는 책임 있는 행동과 참여를 한인 커뮤니티의 모든 이가 과제로 부여 받았음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자 합니다. 이제 2026년도는 ‘영성의 해’로써 지내며, 본당 한인 커뮤니티 설립 30주년을 준비하는 시간들로 채워가고, 신앙적 성숙과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양적인 성장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제가 늘 진심으로 기도하는 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상처를 보듬아주는 성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로서, 언제나 서로의 기쁨과 고통을 함께하며,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고, 사회적 유대를 이루며, 공동선을 위해 충실히 봉사해 왔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사명은, 지난 시간들의 한인 커뮤니티의 여정을 거울 삼아, 사목협의회 위원이나 단체장들의 노력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이를 위한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 여정에 참여할 때, 우리가 서로의 믿음과 희망을 조언해주는 공동체로 더욱 굳건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에 저의 사목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사목은 말씀과 성사에 뿌리내린 신앙 위에, 이민자의 삶을 깊이 이해하는 동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세대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서로를 품는 공동체로 성장하며, 가정과 청년이 희망을 발견하도록 서로를 독려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복음화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영성이 꽃피우는 활기찬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영성특강을 안내해드리며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가정 안에 충만히 내리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3월 8일(주일) 강론	Br. Andrew work for Breadline as Friar
3월 15일(주일) 특강	Fr. 김동권 사무엘(뉴튼 수도원 원장)
5월 17일(주일) 특강	Fr. 이용호 프란치스코 OFM(작은형제회 한국관구)
6월 21일(주일) 특강	Fr. James Gannon(성 프란치스코 수도원 원장)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선종 800주년 기념 특별 희년 선포문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선종 8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희년(Jubilee Year) 제정 칙령이 선포되었음을 기쁜 마음으로 알려드립니다.

교황 레오 14세 성하께서는 2026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월 10일까지를 ‘성 프란치스코의 해’로 지내도록 정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아씨시 성인의 모범을 따라 삶의 거룩함의 본보기가 되고 평화의 끊임없는 증거자가 되도록 초대받습니다. 교황청 내사원은 2025년 정기 희년의 이상적인 연장선인 이 특별 희년에 경건하게 참여하는 이들에게 통상적인 조건 하에 전대사(Plenary Indulgence)를 수여합니다.

이 희년은 특히 제1회, 제2회, 그리고 재속3회와 율수3회로 구성된 프란치스코 가족 수도회원들과 봉헌생활회, 사도생활단,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의 회칙을 준수하거나 그 영성에 영감을 받은 단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해의 은총은 죄를 멀리하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프란치스코 수도원 성당이나 성 프란치스코에게 봉헌된 예배 장소를 순례하는 모든 신자에게도 차별 없이 확대됩니다. 노약자와 병자, 그리고 중대한 사유로 집을 떠날 수 없는 이들도 희년 축제에 영적으로 결합하여 자신의 기도와 고통, 시련을 하느님께 봉헌함으로써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회 기억의 800주년을 정점으로 하는 이 축제의 시기에 모든 신자가 이 예외적인 희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지상에서 참된 ‘또 다른 그리스도(Alter Christus)’가 되기 위해 스스로 가난하고 겸손해졌던 성 프란치스코의 빛나는 모범이 우리 마음을 고취시켜, 이웃에 대한 진실한 그리스도교적 사랑과 민족 간의 화해와 평화에 대한 진심 어린 갈망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기를 바랍니다. 아씨시의 ‘가난한 (Poverello)’의 발자취를 따라, 성년 동안 우리를 순례자로 만들었던 희망을 실천적 자선의 열정과 열망으로 변화시킵시다. 이 ‘성 프란치스코의 해’가 우리 각자에게 하느님의 영광과 온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현대 세계 안에서 성화와 복음적 증거를 위한 섭리적인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대사를 받기 위한 조건(본인 또는 세상을 떠난 이를 위하여)

- 고해성사: 하느님의 은총 지위에 있기 위하여 (희년 참여 전후 8일 이내).
- 미사 참례 및 영성체.
- 순례: 전 세계 어디에서든 프란치스코 수도원 성당이나 성 프란치스코에게 봉헌된 예배 장소를 순례하며, 사도신경(신앙고백)을 바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함.
- 주님의 기도: 세례를 통해 받은 하느님 자녀로서의 품위를 재확인하기 위해 바침.
- 교황님의 지향을 위한 기도: 교회의 기초이자 일치의 가시적 중심인 로마 교황과의 일치를 재확인하기 위해 바침.